미디어아트와 만나는 순창 고인돌 유적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선정
17억원 들여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황혼의 기적' 10월1일~29일 전시

오는 10월1일~29일까지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예상도.

고창의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이 최첨단 미디어아트와 만나는 극과 극의 '콜라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고인돌 유적 세계유산 미디어아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3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의 올해 공모사업은 대상이 기존 세계유산에서 전국의 문화재로 확대되면서 경쟁률이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고창의 고인돌 유적은 세계유산으로서 갖는 보전가치와 사업의 용이성, 효율성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 1차 심사를 통과한 19개 사업 중 최종 선정 8개 사업에 포함됐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은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가공모사업이다.

고창군은 프로젝션 맵핑, LED 조명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아트 구축 및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세계유산과 미디어 디지털 I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지역의 대표 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쉽게 알리고 지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총사업비 17억4000만원을 투입해 고인돌박물관부터 고인돌 유적지까지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해 3000년전 고인돌의 나라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공모는 사업대상이 전국의 문화재로 확대돼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세계가 인정한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 덕분"이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지역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계유산 미디어아트는 다양한 영상기술을 활용한 '황혼의 기적'이란 주제로 오는 10월1일~29일 고창 고인돌 유적과 고인돌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전북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팀 구성·운영…준비 순조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교실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부진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전북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공간혁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안전 등 5대 핵심요소를 포함한다.

앞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팀은 2021~2022년 사업 대상 학교인 62개교(3052억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2023년부터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9월 중에 내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대상학교 선정작업을 거쳐 10월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27동, 7만4200㎡에 사업비는 1625억원이다.

내년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담기 위한 환경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의 미래학교 전담부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지원, 공간혁신 모델 개발 보급, 교육기획·공간기획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스포츠클럽 소속 초등학교 운동부 전문 선수반 수영선수들.

정읍스포츠클럽,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3년간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지원

정읍스포츠클럽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유능한 지도자를 활용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읍스포츠클럽(회장 윤준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한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정읍스포츠클럽이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스포츠클럽은 시설의 공익목적사업 추진 적합도와 인적 자원, 프로그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정읍스포츠클럽은 지자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수의계약과 사용료 최대 100% 감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

또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를 연계한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성별·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사문화제 '부도여인상' 유옥순씨 선정

제33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여인상'에 정읍시 소성면 유옥순(61·사진)씨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부도여인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옥순씨를 올해의 부도여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유옥순씨는 결혼 후 6개월만에 남편이 서울 지하철 현장에서 사고로 한쪽다리를 잃자 남편의 치료를 위해 정읍시 소성면으로 낙향했다.

유씨의 간호덕에 남편은 의족에 의거 농사일을 도울 정도로 호전됐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본인은 지난 2012년 본인의 림프종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 2014년 남편의 급성 뇌경색으로 거동마저 못하게 되어 아픈 몸을 이끌며 남편의 손발이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등 남다른 가족 사랑 실천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또 마을의 대소사 및 봉사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솔선수범하는 등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부도여인상 시상은 9월24일 제33회 정읍사문화제 기념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부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헌신과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여인을 선정해 부도여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9개 단체와 곤충산업발전 업무협약

남원시와 곤충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9개 단체 대표들이 곤충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전북대 등 곤충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9개 단체와 최근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와 전북대 등 9개 단체는 협약체결을 통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곤충생산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곤충원물 수급 안정화 지원 ▲ 곤충자원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환경 구축 등 남원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학교 단장,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 배종향 학장, 원광대학교 의과대 김민선 학장, 케이디바이오(주) 김연주 대표, (주)노블젠 김태현 대표, (주)흙농 김귀호 대표, 더블랙코스메틱(주) 신동필 대표, (주)피토스 안준미 대표, (유)코인 김연우 대표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곤충시장은 2019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원시는 곤충산업이 미래 대체 단백질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전북과학대, 청년고용 활성화 협약

현장 중심 일자리 연결 기회 확대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역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학수 시장과 전북과학대 이영준 총장,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이현대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취업중개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과 구직자의 구인·구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일자리 연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자의 취업교육과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전반에 걸친 실무를 수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력수급이 필요한 사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최적의 맞춤형 연결시스템을 구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취업 중개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취업중개센터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